



미 증시, FOMC, 애플 실적 대기하며 반등

미국 증시 리뷰

30 일(월) 미국 증시는 FOMC와 애플 실적을 대기하는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미국 재정적자 및 금리급등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등 투자심리 개선되며 반등에 성공 (다우 +1.58%, S&P500 +1.20%, 나스닥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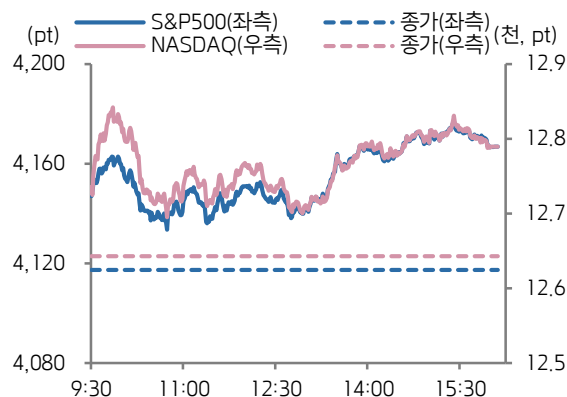
미국 재무부는 4분기 국채 발행 총 규모 추정치를 7760억 달러로 발표, 7월에 제시한 금액보다 760억 달러 적고, JP 모건의 전망치 8000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 다만 내년 1분기 국채발행규모는 8160억달러로 제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합친 발행규모는 1조 5900억 달러로 JP 모건과 도이체방크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준. 장기물과 단기물의 비중 등 발행할 국채의 구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으며 일각에서는 장기물을 더 많이 발행한다면 장기채 수익률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

일본 중앙은행이 31일 장기 금리 상한을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지난 7월 이후 YCC 정책의 재수정을 논의하는 이유는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일본 장기금리가 1%대 가까이 급등,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YOY 3.8%(예상 4.0%, 전월 4.5%), MOM 0.0%(예상 0.2%, 전월 0.3%)로 예상치 하회. 3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QOQ -0.1%(예상 -0.3%, 1분기 0.0%)로 예상치 대비 양호. 구매력 저하와 금리상승에 기인했으며 일각에서는 ECB의 긴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 "유로존에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최소한 확인됐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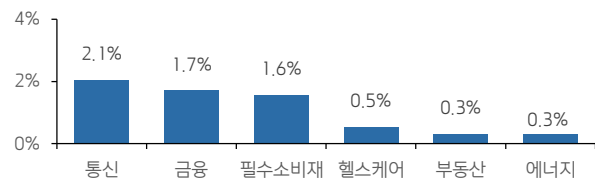
전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2.1%), 금융(+1.7%), 필수소비재(+1.6%)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파나소닉은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사업부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15% 하향하고 3분기 배터리 생산량을 축소했다고 보도. 테슬라를 주요 수요처로 둔 온세미컨덕터(-21.77%)는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함에도, 소비자 컴퓨팅과 산업 부문 내 일부 영역에서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 기대 20억달러에 못 미치는 4분기 전망치를 제시한 영향으로 급락. 테슬라(-4.79%) 주가 역시 동반 약세. 반면 분기 최대실적을 발표한 BYD(1.37%)는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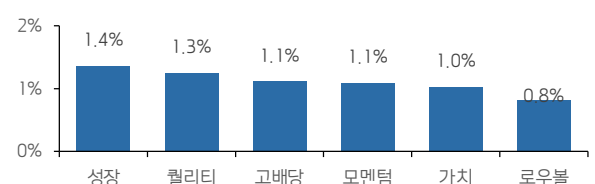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310.55	+0.34%	USD/KRW	1,350.90	-0.37%
코스피 200	308.95	+0.14%	달러 지수	106.14	-0.39%
코스닥	757.12	+1.15%	EUR/USD	1.06	+0%
코스닥 150	1,189.29	+1.16%	USD/CNH	7.33	+0%
S&P500	4,166.82	+1.2%	USD/JPY	149.05	-0.03%
NASDAQ	12,789.48	+1.16%	채권시장		
다우	32,928.96	+1.58%	국고채 3년	4.085	+0.8bp
VIX	19.75	-7.15%	국고채 10년	4.305	+1.5bp
러셀 2000	1,647.29	+0.63%	미국 국채 2년	5.054	+5.2bp
필라. 반도체	3,185.18	-1.3%	미국 국채 10년	4.894	+6bp
다우 운송	13,826.69	+2%	미국 국채 30년	5.049	+3.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028.32	+0.35%	WTI	82.59	+0.34%
MSCI 전세계 지수	634.88	+0.86%	브렌트유	87.45	-3.35%
MSCI DM 지수	2,757.59	+0.94%	금	2005.7	0%
MSCI EM 지수	921.90	+0.23%	은	23.46	+0.27%
MSCI 한국 ETF	55.95	+2.4%	구리	365.35	-0.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0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4.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지난주 폭락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지속 여부 2. 삼성전자의 세부사업부문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 주가 변화 3. BOJ 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금요일 이후 주요국 증시는 반등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추세 반전으로 상정하기에는 매크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증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 과정에서 한동안 기대감을 가졌던 3 분기 실적 시즌의 경우, 테슬라, 알파벳, SK 하이닉스 등 일부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형국.

일례로, 10 월 27 일 기준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의 42 개 기업 중 부정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기업 비중이 67%(28 개기업)로 과거 5 년 평균인 59%를 상회. 코스피는 이익 추정치 변화를 통해 가능해 볼 수 있는데, 실적 시즌 시작 전인 10 월 6 일에 2023 년과 2024 년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173.6 조원, 268.5 조원이었으나, 10 월 말 현재 각각 172.9 조원(-0.7 조원), 264.4 조원(-4.1 조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 같은 실적 상 악재가 지난주 증시 패닉셀링을 유발하는데 기여해왔으며, 추후 미국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시 이들의 소비경기, 주요 산업군들의 전방 수요 부진이 기업 이익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함. 다만, 소프트랜딩 수준의 경기 침체는 주가와 이익 전망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왔으며,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3 분기 실적시즌을 통해 이익 전망 하향세가 중단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적절.

더 나아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번 3 분기 실적시즌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주가 하방 경직성이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ex: S&P500 기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의 실적 발표 후 평균 등락률 -1.0% vs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의 실적 발표 후 평균 등락률 -5.2%).

한국이나 미국 모두 향후 실적 방향성은 바닥 확인 후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해 봐야함. 또한 9 월 이후 약 2 개월에 걸친 주가 조정을 통해 증시의 가격 메리트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 일변도의 환경에서 반등의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10 월 30 일 종가 기준, 9 월 이후 코스피 -9.6%, 코스닥 -18.4%, S&P500 -7.6%, 나스닥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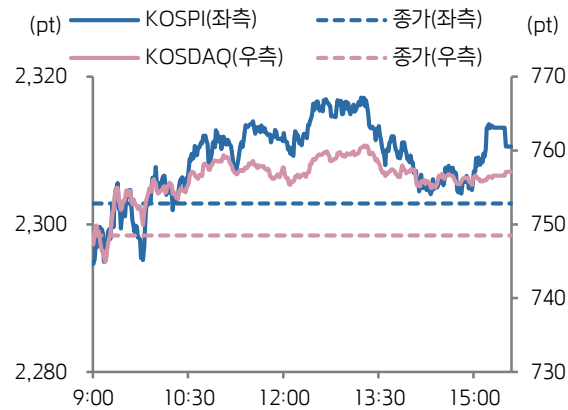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금주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변동성 장세 여파에도,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개별 실적 이벤트를 소화해가면서 반등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1.2%).

금일에도 알파벳(+1.9%), 애플(+1.2%) 등 미국 주요 빅테크주들의 반등, 달러화 약세 및 시장금리 상승세 진정 등 미국발 우호적인 재료,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양호한 외국인 및 기관 수급 환경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추가 병력 투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 확대 우려를 자극할 수 있겠으나, WTI 국제유가(-3.5%)의 급락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확산될 여지가 낮다는 점도 금일 증시에 중립적인 영향만 가할 것으로 전망.

장중에는 삼성전자의 세부 사업부문 별 실적 발표와 BOJ 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영향 받을 것으로 판단. SK 하이닉스의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최근 반도체 주들은 취약한 주가흐름을 보였지만, 금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문에서의 감산 이후 적자폭 축소 정도 등을 통해 이들 업종의 주가 반등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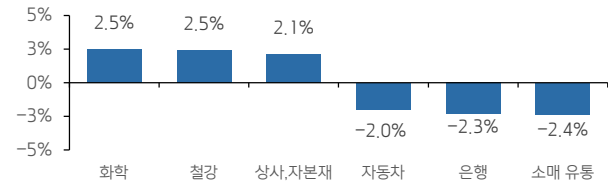
또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은 국면인 만큼, 장기물 금리 상한선(YCC, 현재 1.0%)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 엔화 환율 150 엔 돌파 여부도 관련 포인트가 될 것. 이는 국내 증시에도 외환 및 채권 시장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 회의 결과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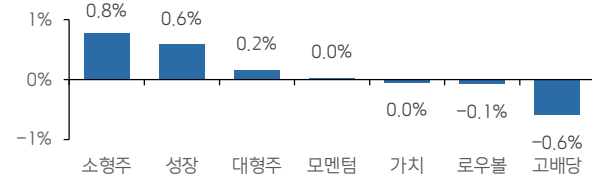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